

A Study on the Educational Approach of Catholic Sunday School Teachers Supporting Religious Activity of the Youth during Pandemic Era: Based on Phenomenological Research

Jinok Lee¹, Mankeun Yoon^{2*}

¹Institute of Don Bosco Youth Spirituality and Ministry, ²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ttitudes and approaches of Sunday School teachers, along with the internal factors within the church that can enhance the faith activities of the youth. The exploration i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Catholic Sunday School teachers during the pandemic.

[Contents]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d 9 teachers from 9 parishes within A dioces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utilizing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ults revealed four themes: the pandemic's impact on Sunday School teachers, teachers' proactive initiatives, students' responses, and the role of a responsible faith community.

[Conclus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Sunday School teachers play a crucial role in helping young people sustain their faith activities and develop mature faith perspectives. Furthermore, the collaboration between Sunday School teachers and the faith community serves as an internal factor in promoting the faith activities of the youth.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urch community should acknowledge the role of Sunday School teachers and foster collaboration with them to sustain the faith activities of the youth.

[Keywords] Catholic Sunday School, Youth faith activity, Youth, Pandemic, Catechist

* Corresponding to Mankeun Yoon (Assistant Professor,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yunmose@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팬데믹 시대 청소년 신앙 활동을 돕는 가톨릭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태도와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 현상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이진옥¹, 윤만근²

¹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선임연구원, ²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조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리교사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활동 증진에 필요한 교회 내부적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톨릭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리교사의 역할에 대해 평신도 그리스도인, 신앙여정의 동반자, 그리고 공동체와 협력하는 교리교사로 나누어 교회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A교구 9개 본당에 속한 9명의 교리교사들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교리교사를 위협하는 팬데믹,’ ‘행동하는 교리교사,’ ‘응답하는 학생’ 그리고 ‘책임지는 신앙 공동체’의 4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은 청소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교리교사와 신앙 공동체와의 협력은 청소년의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회 내적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앙 공동체가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교리교사의 태도와 역할, 가톨릭 주일학교, 청소년, 청소년 종교활동

I. 서론

한국 천주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극복하려는 정부의 대응에 동참하고자 2020년부터 전체 공동체를 위한 대면미사를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침에 따라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며 미사를 거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방식은 신자들의 종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나아가 가톨릭 청소년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주일학교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대면 중심의 신앙 활동이 비대면화 되면서 청소년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주일학교도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교리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비록 신앙 교육과 의사소통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교리교사는 단절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operation, 2021.03.24.). 이러한 노력은 팬데믹 동안 단절된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을 증진 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외부적인 사회적 요인과 교회 내의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본당의 주일학교 담당 사목자, 학생들의 부모, 교리교사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Cho, 2014: 192). 특히 내부적 요인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리교사의 관심과 역할은 청소년들의 종교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구분만은 교리교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덕으로 돌보는 관계, 책임감, 진실성을 제시한다. 그는 종교교육의 목적이 교육받는 이가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보고, 윤리적 덕에 기반한 교리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청소년의 신앙 성숙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Koo, 2009: 32). 김정준 역시 종교에서 추구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 일치된 삶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종교적 가치관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리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리교사는 자신의 종교 진리에 확신을 두고, 가정과 연계하며, 대면과 비대면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허용하는 종교 교육 현장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교리교사는 주일학교 교육의 비전과 열정의 회복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Kim, 2021: 26).

이와 같은 연구는 청소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교리교사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런 점에서 교리교사의 역할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을 지속시키는 도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가톨릭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역할과 태도가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과 활동에 대한 교리교사의 역할과 태도를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는 중

요하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신앙 성숙과 주일학교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교리교사의 태도와 역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시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을 증진하는 교회 내부의 도움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현재 침체되어 가는 가톨릭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가 제시한 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태도와 역할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파악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체험한 의미를 공통적으로 기술해내는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Creswell & Poth, 2021: 102).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기간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 교리교사의 태도와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둘째, 청소년의 신앙 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회 내부적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톨릭교회 문헌이 제시하는 평신도 교리교사의 역할

가톨릭교회에서 제시한 교리교사의 주된 역할은 학생들에 대한 교리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리교육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교리교육의 본질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파스가 선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51)이기 때문이다. 즉, 교리교육의 목적을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의 선포”(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52)로 이해한다면, 교리교육을 하는 교리교사는 학생들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리교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사제직, 예언직 그리고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의 선교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부여받는다(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3, 229). 이는 교리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과 모범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리교사는 “신앙 안에서 신앙을 전달하는 직무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83).

교리교사를 구성하는 교회의 직분에는 주교, 사제, 부제, 수도자를 포함하여 평신도가 있다. 이 가운데서 평신도 교리교사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는 ‘세속적 본성’(Indoles Secularium)을 지니는데, 이는 평신도가 살고 있는 현세 질서 안에서 복음화 활동에 참여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교리교사는 학생들에게 교리교육을 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에 동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 선포의 한 형태가 되며, 이것이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하는 길이 될 수 있다(Mazzolini, 2010: 129-133). 이러한 점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하는 교리교사의 삶은 세상 안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안내한다. 즉, 교리교사는 증거(Testimonianza)하는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학생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직분으로 주어지는 사명을 수행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2. 청소년 사목에서 바라보는 동반자로서 교리교사의 역할

가톨릭교회 내 청소년 사목의 역할은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생동감 넘치는 활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다(Sala, 2017: 249).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청소년이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식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성소를 식별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된 이유,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주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계획”을 깨닫는 것이다(Francis, 2019: 151). 즉,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 시기 삶의 방향과 의미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청소년들이 하느님께로 그들의 삶을 정향 하도록 신앙 여정을 동반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Lee, 2022: 62).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사목에서의 교리교사는 청소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신앙 지식의 전달을 넘어, 그들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동반할 역할까지 부여받는다. 즉, 교리교사는 청소년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Oh, 2022: 183-184). 이러한 면에서 교리교사에게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앙심,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애정,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요구된다(Cho, 2016: 259).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는 청소년 사목의 방향을 동반자 사목으로 전환하면서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는 교회 구성원(성직자, 수도자, 부모, 교리교사, 가톨릭 교원)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CBCK, 2021: 105-110). 그 가운데 교리교사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교리 교육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CBCK, 2021: 108-109).

효과적인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리 교사는 청소년기의 문화적 특징과 더불어 그들이 실 생활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서, 복음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진리와 자유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소 식별과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만민 선교에 대한 책임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리교사와 청소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신앙 교육 실현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책임 있는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일학교 교리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리 전달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계를 통하여 그들을 삶으로 동반할 역할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도록 신앙 여정을 동반하고 그들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성장시키는 것이 교리교사들의 역할임을 알려주고 있다.

3. 공동체 안에서 교리교사의 역할

공동체는 신앙의 증언이 일어나는 곳이며, 구성원에게 교리교육을 제공하여 신앙 성숙에 이룰도록 만드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다(CBCK, 2021: 68). 따라서 청소년의 신앙 여정을 동반하는 일은 주일학교 교리교사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역할이다(Francis, 2019: 120). 공동체는 “많은 얼굴로 이루어진 모자이크”(XV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2021: 279)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와 성사 그리고 봉사는 청소년이 복음적 친교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는 주일학교와 청소년이 가정 공동체와 본당 공동체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청소년의 복음화를 향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가 한국 청소년 사목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즉 선교 지향적인 청소년 사목, 가정 친화적인 청소년 사목, 유기적인 협력의 사목 구조, 교육 사목 공동체, 대중 청소년 사목(CBCK, 201: 123-154)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리교사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정 공동체의 협력은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신앙 실천과 신앙 습관의 형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Francesco, 2019: 154). 이는 부모가 청소년의 첫 번째 교리교사로서 자녀의 교리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Ryu, 2018: 209).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느님께서 지니신 아버지의 면모와 어머니의 면모를 깨닫게 된다. 또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안에서 상호성과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을 배우게 된다(Francis, 2016: 137). 이것은 청소년이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배우는 출발점이 되며 사회성을 키우는 특별한 계기가 된다(Francis, 2016: 154). 즉, 교리교사와 가정 공동체와의 협력을 이루는 관계는 청소년의 신앙 활동과 신앙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리교사는 청소년의 신앙 여정을 동반하는 데 있어 여러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목 구조

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담당사제나 소수의 책임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본당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 책임감을 지니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CBCK, 2021: 142). 이러한 면에서 교리교사는 공동체와의 협력 안에서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완성해 나갈 수 있으며, 모든 청소년이 하느님을 향한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존재인 것이다(Francis, 2019: 122).

III.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사람의 체험(lived experience)을 공통적 의미로 기술하는 방법을 말한다(Creswell & Poth, 2021: 111).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연구자가 현상학적 함의를 발견하고, 진술 내용 중 공통적인 자료를 묶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둔다(Lee, 2019: 3). 이러한 이유로 현상학 연구는 ‘판단중지(epoche)’와 환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상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둔다(Creswell & Poth, 2021: 114).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여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신앙 여정을 동반해야 하는 교리교사 개인의 고유하고 주관적인 체험을 심층 면접을 통해 면접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면접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 연구에 참여한 교리교사들의 공유된 체험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연구 절차와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자는 한국 천주교회 16개 교구 가운데 A교구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A교구를 선택한 이유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A교구의 교리교사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기에 A교구와 소통이 원활하고 연구를 위한 접근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22년 5월 A교구의 청소년 사목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고 연구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후, 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2개월 동안 총 4차례(2022년 9월 17일; 2022년 9월 24일; 2022년 10월 1일; 2022년 10월 8일) 방문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심층 면접과 문서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9명이며, 현재 A교구에 속한 9개 본당에서 주일학교 교리교사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연구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수집한 주

일학교 교리교사의 명단 가운데, 교리교사의 경험 기간에 따라 선발하였다. 교리교사로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은 2년부터 41년까지 다양한 범위에 놓여있으며, 비대면 신앙 교육 시대에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기대하여 경험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별하였다.

<표 1> 면담 참여자의 인적 사항
<Table 1> Interviewee Demographics

	본당	성별	연령	교사 연차
교리교사 1	A 본당	남	21세	2년차
교리교사 2	B 본당	여	22세	3년차
교리교사 3	C 본당	여	25세	7년차
교리교사 4	D 본당	남	29세	7년차
교리교사 5	E 본당	여	31세	10년차
교리교사 6	F 본당	남	32세	11년차
교리교사 7	G 본당	여	34세	15년차
교리교사 8	H 본당	여	56세	25년차
교리교사 9	I 본당	여	61세	34년차

2.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문서의 형태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 등 연구 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면담은 A교구 청소년 사목국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눔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상적인 질문을 시작하며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40분-5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미리 작성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면담 시작 전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 종료 후 빠른 시간 내에 전사를 완료하였다. 반면 문서의 경우는 기관 방문 동안에 관계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얻어, 교리교사의 기본 인적 사항과 A교구 교리교사 현황 등과 같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표 2> 면담 참여자의 면담 질문의 대표적인 예
 <Table 2> Representative examples of Interview Questions from Interviewees

면담 참여자	면담 질문의 대표적인 예시
주일학교 교리교사	1.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2.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의 신앙 활동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3.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의 교리교육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3. 자료 분석 및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팬데믹 동안 대면 신앙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청소년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도록 교리교사의 활동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자료는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중 Moustakas(1994)의 접근 방법론에 기초하여 수집하였다. Moustakas(1994)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판단중지(epoche)와 괄호 치기를 통하여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제한을 둬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기술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Creswell & Poth, 2021⁴ : 115).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의미 있는 진술들과 주제를 추출하기 위하여 전사된 자료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읽었다. 그리고 개별 문장 단위로 교리교사의 현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들과 주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진술과 주제는 사목신학 분야의 개념어를 활용하여 공통된 주제로 묶어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현상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기술하는 ‘조직적 기술(Textural)’과 어떻게 그 현상을 경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구조적(Structural) 기술’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기술 방식에서부터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복합적 기술(Composite description)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제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공통된 주제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Creswell & Poth, 2021: 117-118).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서 개방 코딩을 활용하여 발견한 의미를 91개의 개념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8개의 주제로 하위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하위 범주의 주제에 대한 연역화 과정을 거쳐 총 4개의 주제로 상위범주화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비교를 5회 이상 지속하여 실행하였다. 지속적인 비교는 광범위한 자료로 인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자료를 선별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Gharam, 2022: 197-198).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전문가인 공동 연구자로부터 분석 방식과 분석 결과를 교차 점검함으로써, 자료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질적 연구가 지닌 주관적 해석의 한계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팬데믹 시기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이 지속되도록 도움을 준 교리교사의 태도 및 접근 방법과 더불어 청소년의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회 내적 요인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에서 도출하여 상위범주화 한 4가지 주제 즉, “교리교사를 위협하는 팬데믹,” “행동하는 교리교사,” “응답하는 학생,” “책임지는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3> 코로나-19시기 청소년의 신앙 활동의 지속을 위한 교리교사의 역할
<Table 3> The Role of Sunday School Teacher in Keeping Youth Faith Activity during Covid-19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개념의 대표적인 예시
교리교사를 위협하는 팬데믹	코로나 시기의 초보 교리교사	· 미사 도우미로 전락한 초보 교리교사 · 선배 교사만 따라 하는 초보 교사 ·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동자 같은 교리교사
	팬데믹이 준 교리교사의 심리적 도전	· 교사로서 양성 받지 못하는 소외감 · 학생이 없는 교사의 존재적 무력감 · 학생의 부재가 익숙해진 교사의 심리적 안위
행동하는 교리교사	학생들과 관계에 몰입하는 교리교사	· 지속적인 온라인 연락을 통한 관계 유지하기 · 학생을 도와주기 위한 교사들 간의 고민 나눔 · 정모를 통해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기
	열정으로 임하는 교리교육	· 매주 SNS를 통하여 교리교육을 지속 · 교리교육 유인물을 만들어 학생들의 집으로 직접배달 · 활동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
응답하는 학생	신앙에 무관심한 학생들	· 교사들의 연락에 무관심한 반응 · 교리교육 활동에 낮은 참석률
	교리교사의 노력에 개방하는 학생	· 조금씩 교사의 노력에 반응하는 학생 · 신앙 활동에 반응하는 학생들
책임지는 신앙공동체	부모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 신앙으로 안내하는 부모의 노력 · 교리교육의 과정을 부모님과 공유 · 학생들을 낮은 참여율로 유도하는 부모님의 부재
	본당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 신앙 공동체의 재정적 지원으로 프로그램 개발 · 교리교사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목자 · 전 신자들과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공유

1. 교리교사를 위협하는 팬데믹

1) 코로나-19 시기의 초보 교리교사

코로나-19는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활동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가톨릭교회가 선제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 활동을 중단하면서 주일학교의 모습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활동하는 대부분의 교리교사는 “그냥 미사를 좀 와주는 정도”(교리교사 1)이거나 교리교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서 “선배 교리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교리교사 2) 소극적인 형태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시기에 교리교사 활동을 시작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올해 15년차 교리교사 7은 선배 교리교사가 바라본 후배 교리교사의 모습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코로나 중간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단체로 하는 이 정도만 살짝 맛보기만 하신 거죠. …… 1년차 선생님들은 그래도 코로나 시기를 학생으로 지내고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선생님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분들은 그냥 지금 다 새로운 거 ……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리교사 7)

2) 팬데믹이 준 교리교사의 심리적 도전

코로나-19 시기에 활동한 교리교사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았다. 이 시기에 교리교사는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교리교사 9)로 느껴질 만큼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 주일학교 활동이 축소되면서 교리교사의 활동도 함께 축소되니, 이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리교사를 시작한 교리교사 2는 “교리교사라기보다 계속 학생의 연장선상이었던 느낌”이 컸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교리교사 활동은 교리교사로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심리적 위기를 가져다주어, 교리교사 활동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게 했다.

그때는 애들도 못 만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만할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가 올해 이대로 그만두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다시 그냥 해보자 한 거예요. (교리교사 2)

너무 힘들었죠. 너무 사실 공허했어요. (학생들을)너무 많이 못 만나서 그래서, 아마 그만두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다는 걸로 들었고 …… (교리교사 4)

또한 교리교사는 학생들에게 교리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리교사 1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성당에 나오는 것에 좀 기쁨을 느꼈으면 했는데 카드 뉴스로만 교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조회가 한 3~4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관심이 없더라도 귀에 선생님들이 직접 넣어주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교리교사 1)

반면에 매주 휴식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교리교사 6은 코로나-19의 방역 정책에 따라 휴일(주일)이 있는 삶을 맞게 되면서,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개인적으로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방역 정책이 완화되고 다시 주일학교가 재개되면서 편안함에 익숙해진 교리교사는 다시 교리교사 활동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미사를 못 가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 가다가 토요일 날 중단돼서 안 가다가 다시 가려니까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토요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제 시간은 제가 원래 없었는데 성당을 가야 하니까 20살 때부터 했었는데 뭔가 코로나 이후로 토요일에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성당엘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를 위해서 아니면 제 친구들이랑 아니면 제 가족이랑 보내다 보니까 다시 이 토요일을 봉사하는 시간으로 쓰기에 살짝 힘들더라고요. (교리교사 6)

교사들이 맨 처음에는 좀 불편했죠. 마음이 나중에는 편한 거예요. 안해도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해도 되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안해도 되니까 이러면서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거죠. (교리교사 9)

이처럼 팬데믹 시기는 초보 교리교사의 경험처럼 교리교사로서 역할을 배울 기회뿐 아니라, 많은 교리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 가는 기회를 갖아가는 심리적 위기를 가져다준 시기였다. 게다가 교리교사에게 육체적 안위를 가져다주며 그들에게 교리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도전적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2. 행동하는 교리교사

1) 학생들과 관계 유지에 몰입하는 교리교사

코로나-19시기 동안 교리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교리교사의 역할 중 학생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신앙 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리교사는 “발 빠르게 비대면 교리로 전환”(교리교사 8)하면서 학생들과 관계 유지를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주일학교 활동을 재개한 이후 학생들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교리교사들은 “처음에는 보이스톡이나 줌으로 아이들이랑 토요일마다 9시가 되면

만나서 같이 주모경”(교리교사 5)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몇 날 몇 시에 만나서 카톡으로 같이 얘기 나눔”(교리교사 7)을 통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반하였다.

저희는 그래도 카톡방이 있어서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학생은 그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 주는 건 그날 주일 복음을 항상 올려줬어요.. 코로나 때 학생들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일 복음은 말라고 해서 제가 진짜 항상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랑 주일복음을 올려줬어요. (교리교사 4)

코로나 때 학생들을 마주칠 수 있었던 것이 신부님이 저한테 복사단을 잠깐 맡아달라고 하셔서 제가 아이들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때 알았던 중고등부 애들이 거의 2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랑 매일 매일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성당 나오거나 안 나오면 연락을 좀 주고 받는 건 있어요. (교리교사 5)

2) 열정으로 임하는 교리교육

교리교사는 모든 신앙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리교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교리교육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교리교사는 학생들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삶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리교육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였다. 대부분의 교리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리교육을 하였는데 주로 온라인 플랫폼이 교리교육을 하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직접적인 만남은 못할지라도 어떻게 온라인으로라도 뭐라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저희는 교리를 매주 카드 뉴스로 이렇게 발송을 해줬어요. (교리교사 3)

교리교사는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겪게 되는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교리교사 8)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마음은 교리교사들이 서로 연대하며 함께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교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제 교사들이 같이 먼저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이 이랬을 때 우리 이렇게 해서 아이들 만나면 어때요? 라고 한 선생님이 말을 해줬을 때 옆 선생님들이 공감해주고 자신들이 가능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함께 해줘서 감사했어요. (교리교사 8)

팬데믹 동안 다양한 방법을 찾으며 단절된 학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리교사의 관심과 애정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리교육에 대한

열정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리교육을 가르치는 교리교육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에게 신앙의 중요성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신앙과 연결되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

3. 응답하는 학생

1) 신앙에 무관심한 학생들

코로나-19시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교리교사에게 학생들은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을 한다. 교리교사는 코로나의 위협뿐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데 현실적인 장벽을 느낄 뿐이며, 이는 교리교사가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근데 뭐 차단을 해놓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을 닫더라고요 코로나 무서워서 안 가고 싶어요. (교리교사 3)

실제, 대부분의 교리교사들은 SNS를 활용하여 팬데믹 동안 학생들과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태도는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교리교사와의 관계뿐 아니라 신앙과의 단절로 향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각자 그냥 미사하고 그리고 카톡 상으로 그냥 교리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교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기는 하지만 답변이 없을 때가 더 많고 그리고 미사를 지키자고 유튜브로 이제 하는 미사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교리교사 9)

2) 교리교사의 노력에 개방하는 학생

교리교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을 책임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의 무관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교리교사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리교사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반드시 돌아”(교리교사 4)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리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학생들에 대한 교리교사의 관심은 학생들이 주일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중간에 한 3-4개월 거의 6개월 가까이를 미사를 안했어요. 아이들은 학생 미사를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일단 애들이 진짜 반이 뭐예요. 3분의 1밖에 안 오는데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랬더니) 그 안 온 애들도 미사 끝나고 그냥 집에 가다가 이제(주일학교를) 시작하고,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리교사 7)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교리교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학생들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기간 신부님의 부탁으로 복사단을 책임졌던 교리교사 5의 경험에서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는 복사 학생들과는 미사 전례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났으나, 그 외의 학생들과는 연락을 소홀히 하여 결국 그들을 성당에서 만나기 힘들다는 체험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보이스톡이나 줌으로 아이들랑 9시 되면 주모경을 한다든지 토요일마다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줌 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나봤던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 부지 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복사단 했던 친구들이 자주 나오지 그 이외에 아이들은 거의 안 나와요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고등부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교리교사 5)

결국, 교리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학생들과의 소통은 학생들의 신앙 활동에 반응을 얻어내고 학생들에게 신앙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본질적인 힘임을 발견하게 된다.

4. 책임지는 신앙공동체

1) 부모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청소년의 첫 번째 교리교사의 역할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Ryu, 2018: 209).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 공동체의 교리교사와 협력은 청소년의 신앙 교육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가정의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은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활동이 축소되고 그 기능이 가정으로 확장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일학교에서 마련하는 청소년의 신앙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가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주일학교 참여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현상을 교리교사 8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활동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그 과정을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관심도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86.7%정도였어요. 근데 이걸 초등부와 중고등부 SNS는 조금 더 저조 했어요. 한 67% 정도? 초등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중고등부는 그렇지 않는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초등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됐는데 중고등부는 학부모를 배제하고 한 거예요. 이제 중고등부는 좀 컸다고 생각을 해서 밴드를 이용해서 SNS 교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교사하고 학생만, 그러니까 학부모가 빠

진 거죠.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참여율이 조금 저조해서 교사들하고 얘기한 것도, 아! 가정이라는 소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밴드에 올리고 교리를 주면 학부모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해요. (교리교사 8)

2) 본당공동체와 함께하는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신앙 활동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당 공동체의 관심도 중요하다. 특히 사목 지원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본당 사제의 사목 방침과 청소년 사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공동체의 관심이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주일학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 꼭 교리 교사의 문제만은 아니고 본당 사목자인 신부님의 사목방침이 어느 곳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들이 교리교사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교리 교사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본당과 해주지 않는 본당에 교리 교사들은 참 많이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교리교사 8)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대한 책임은 교리교사뿐 아니라 신앙공동체와 함께 협력하는 구조이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 공동체와의 협력은 교리교사가 청소년 신앙 활동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본당 사제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본당 공동체의 관심은 교리교사들이 청소년들의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는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신앙공동체가 교리교사와 함께 참여해야 함을 알려준다.

V. 결론: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라는 종교 활동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개입한 가톨릭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태도와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나아가 청소년의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회 내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교리교사를 위협하는 팬데믹,” “행동하는 교리교사,” “응답하는 학생” 그리고 “책임지는 신앙공동체”로 구성된 네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팬데믹 기간은 청소년의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에도 위기와 도전의 시기였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데 대하여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교리교사 활동을 시작할 경우는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에 대해 양성 받을 기회가 없어 학생들을 만나는 데 많은 어

려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교리교사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보다 비대면 형식의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리교사에게 존재적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가져다주며 교리교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기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리교사는 청소년을 위하여 다시 힘을 얻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교리교사들이 비대면으로 주일학교 운영 방식을 재빨리 전환하면서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을 만나려는 노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교리교사가 팬데믹 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청소년의 신앙 여정을 동반하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비록 청소년과 직접 만나는 데 한계를 지녔으나 온라인을 통하여 청소년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온라인이나 SNS로 교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직접 교리교육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가정으로 전달하는 열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은 활동 내용을 온라인 채널에 공유하며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태도와 접근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리교사들의 관심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교리교사들의 노력과 달리 학생들은 교리교사의 소통 방식에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에 낮은 참석률을 보이며 교리교육이나 종교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청소년들은 교리교사와 소통 창구를 닫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교리교사에 대한 도전을 넘어, 청소년들이 신앙 활동과 단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리교사의 노력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개방하는 데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이 신앙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교리교사의 연락에 응답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이 회복된 후 주일학교가 재개되었을 때 주일학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에 관한 관심과 열정에서 시작된 교리교사의 능동적이며 희생적인 역할이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라 확신할 수 있다. 또한 교리교사와 신앙공동체가 함께 이루어나갈 때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정 공동체의 역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녀들의 신앙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이 자녀들의 신앙 활동과 삶에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본당 공동체와 같은 신앙공동체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관심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교사들의 투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동안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도움을 준 교리교사들의 태도와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가톨릭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은 청소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 참여한 교리교사 대부분은 팬데믹 동안 무기력과 심리적인 공허함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시기에도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반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Francis, 2019: 124).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는 신앙적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 교리교사가 청소년 신앙 교육의 우선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Cho, 2014: 192). 무엇보다 교리교사에 대해 “신앙 안에서 신앙을 전달하는 직무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접근한다면,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교리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더욱 분명해진다(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83). 즉, 교리교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교리교사로서 자신의 직분과 역할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지니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교구 차원 혹은 본당 차원에서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질적인 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리교사에게 교리 지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교리와 관련된 지식 교육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자로서 교리교사의 본질을 인식시키는 과정은 교리 지식을 위한 교육 이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회 내적 요인은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 대해, 본연구결과는 교리교사와 신앙공동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얻는 공동체 체험은 그들이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을 체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Francesco, 2019: 143). 이러한 면에서 가정 공동체의 참여는 청소년의 신앙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Francis, 2019: 154).

청소년의 신앙 활동에 대한 가정의 역할은 팬데믹 동안 분명하게 나타났다. 즉, 팬데믹 기간 과거의 형태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리교사는 청소년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앙 교육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의 관심을 끄는 데 한계를 보였으나, 부모님을 주축으로 하는 가정의 개입은 청소년의 신앙 교육 참여율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신앙 교육에 있어 교리교사와 가정 공동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모가 제공된 교리교육을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가정 공동체의 신앙 활동은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당 공동체의 관심은 교리교사가 청소년에게 신앙 교육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펼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더라도 본당 사제의

관심,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본당 공동체의 관심이 없다면 이를 실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성하고 희망적인 교회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교리교사의 접근방식과 태도는 청소년의 신앙 성숙에 필요한 교회 내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일학교에서 교리교사의 역할은 교리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신앙 지식 전달뿐 아니라 청소년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그 여정을 동반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교사의 교육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청소년과의 관계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Yoon, 2022: 113). 나아가 팬데믹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화를 향한 교리교사의 열정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신앙 활동을 지속해서 참여하는 데 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리교사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청소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교리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은 오늘날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리교사가 가정과 본당 공동체와 같은 신앙공동체와 협력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 증진에 필요한 교회 내적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즉, 신앙공동체와 협력은 교리교사들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구체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 대한 교리교사들의 접근방식과 태도뿐 아니라, 가정 및 신앙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은 주일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청소년들의 신앙을 증진시킬 도움 요소임을 알게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앙 활동에 영향을 주는 교리교사의 접근 방법과 태도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리교사의 경험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선별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교리교사들의 이야기에 의존한 것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 Cho, B. (2013). Development and Faith Education of Adolescents. *Theological Perspective*, 185, 166-201.
- Cho, Y. K. (2016). A New Paradigm for Sunday School: Centered for Youth Faith Formation. *The Pastoral Studies*, 36, 230-266.
- Creswell, J. W. & Poth, C. N.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 권지성 옮김 (2021).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Kim, J. J. (2021). New Perspective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11-44.
- Koo, B. M. (2009). The Relational Moral Virtues of Catechists. *Journal of Human Studies*, 17, 7-38.
- Lee, H. J. Getting Empty Sunday School, to Help Youth to Find the Church.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operation*, (2021.03.24.), Retrieved 2023. 07. 28. from <https://news.cpbpc.co.kr/article/798913>.
- Lee, J. O. (2022). Do all through love, Nothing through constraint: A study of Youth Ministers Moder after Pandemic era through St. Francis Sale. *Journal of Catholic Youth Education and Minsitry*, 2, 46-85.
- Lee, M. I. (2019).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for Review of Phenomenological Qulitative Research. *Journal of Qulitative Research*, 20(1), 1-14.
- Mazzolini, S. (2009). L’identità e il ruolo del Catechista e della Catechista Laici nella Chiesa comunione e missone. *L’identità del Laico Catechista nell’evangelizzazione dei popoli*, 123-144. (Translated in English) Mazzolini, S. (2009). The identity and role of Catechist and Laity catechist in the Church community and mission. *The Identity of Laity Catechist in Evangelization for the People*, 123-144.
- Oh, S. J. (2022). ‘Modus Vivendi et Modus operandi’ in the Youth Ministry: Youth Ministry. Evangelization, Inculturation, and Synodalitas. *Jouranl of Catholic Youth Education and Minsitry*, 2, 175-209.
- 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Direttorio per la Catechesi, Città Vaticana: Editrice Vaticano. (Tranlated in English) Pontificio Concilio Promozione per la Nuova Evangelizzazione (2020). *Directory for Catechesis*. Vatican City: Editrice Vaticano.
- Francis, P. *Amoris Laetitia*.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6). 사랑의 기쁨.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Francis, P. *Christus Vivit*.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2019).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Sala, R. (2017). Pastorale Giovanil: Evangelizzazione e Educazione dei Giovani. Roma: Las. (Translated in English) Sala, R. (2017). *Youth Ministry 1: Evagelization and Education of Young people*, Rome: Las.
- The Second Vatican Council. *Lumen Gentium*.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1963). 교회 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XV Assemblea generale ordinaria sinodo dei Vescovi (2019). Documento Finale. Città Vaticana: Libreria Editrice Vaticana. (Translated in English) XV Ordinary General Assembly of the Synod of Bishops (2019). Final Document, Vatican City: Libreria Editrice Vaticana.
- Yoon, M. K. (202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Behaviors and Impacts of the Don Bosco School Community Approach on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Schoo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0(2), 89-11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1).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Translated in English) CBCK (2021). *Pastoral Framework of Youth Ministry Catholic Church in Korea*.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